



한국 속의 한국, 생동하는 전라북도! 보도자료

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
공보관 (T.063-280-2032, 2193 /F.280-2299)
<http://www.jeonbuk.go.kr>

▪ 담당부서 : 자연생태과
▪ 담당자 및 연락처
- 자연생태과장 정도진(280-4170)
생태관광팀장 한동철(280-4176)

보도시점 : 2017년 9월 28일(목)부터

가을여행,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

- ▶ 추석연휴 및 가을여행 주간, 찾고 싶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2곳
- ▶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체험, 힐링의 공간으로 가을 맞출 여행

□ 청명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2곳 선보여

- 숲가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10월 추석황금연휴를 시작으로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.
- 지금 당장,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면, 가을이 주는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?
- 유난히 높고 파란 하늘과 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'가을여행'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생태관광지 12곳을 소개한다.

□ 2015년부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, 관광객 발길 이어져

-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는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과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이 있는 곳 중 12곳을 지정하여, 탐방객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.

- 생태관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되, 찾는 이들에게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듬어져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 공간으로서 각광받고 있다.

- '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'는 1963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에서야 사람 출입이 허용되어 40년 이상 사람과 인공의 때가 묻지 않은 군산호수를 중심으로 청정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.

-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을 비롯해 600종 이상의 다양한 동·식물이 관찰할 수 있는 구불길 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, 오토캠핑장과 더불어 최근 조성된 꼬마숲 놀이마당까지 자연 속에서 숲을 느끼기 위한 남녀노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- 특히, 10월에는 군산호수의 드넓은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며,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.

▶ 찾는 위치: 청암산 에코라운드 주차장(옥산면 옥산리 681), 꼬마숲 놀이마당(화현면 새장리 449)

- '익산 서동금마 생태공원'은 한반도 형상을 닮은 금마저수지와 용화산을 중심으로 선화공주와 결혼한 백제 무왕 서동요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.

- 저수지 주변으로 연꽃군락지가 펼쳐져 있으며, 용화산 둘레길과 함께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도 제격이다.

- 삼한시대 마한의 역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진 마한관과 더불어 서동농촌테마공원, 유아 숲 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가족단위 체험학습장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서동공원 주차장(금마면 고도9길 41-14)

○ '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'은 가을단풍의 대명사인 내장산과 더불어, 2010년까지 국립공원지역으로 보전되어 오던 송산마을의 생태숲과 반딧불이 노니는 앞도랑, 그리고 월영습지의 생태자원을 마을이야기와 연계시켜 천연숲으로 이어온 내리사랑을 느낄 수 있다.

- 특히, 월영습지는 전국최고의 내륙습지로 생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14.07.24.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, 천연기념물 등을 비롯한 495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생태계의 보고이다.

-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, 마을 숲과 함께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하며, 생태해설과 모시떡 만들기, 야생화, 다도, 산야초 체험 등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송산마을 회관(정읍시 송죽길 25)

○ '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'는 피톤치드가 풍부한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반경 10km 이내에 사시사철 빼어난 장관을 자랑하는 구룡계곡, 서어나무숲, 노송군락지 등을 함께 관찰할 수 있다.

- 특히, 생태관광지의 거점지역인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역사, 문화, 생태 중요성을 알리고 백두대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.

- 곤충 교실, 토피어리 만들기, 자개거울만들기 등의 체험도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·휴양시설인 트리하우스나 에코랏지를 비롯한 캠핑장에서 1박을 하며 지리산 둘레길, 허브밸리 등 자연생태를

마음껏 만끽해볼 수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장(운봉읍 운봉로 151)

○ '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'은 모악산 물줄기인 원평천에서 생성된 21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하중도 섬으로, 노랗게 물들어 있는 황금 들녘과 그 주위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농경로가 있다.

- 농경로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가을바람에 산들거리는 갈대밭을 마주할 수 있으며, 두더쥐, 너구리, 개구리, 물뱀 등 산업화가 이뤄지기 전 우리 농촌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.

- 우리 나라 최대 고대의 저수지인 벽골제를 비롯해 농경수리박물관,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 등 주변관광지와 함께 벼베기, 논잠자리 잡기 등 생생한 농경생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벽골제 생태농경원 주차장(부량면 용성 6길 66-4)

○ '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'은 예전 삼례↔금산을 연결하는 기착지로, 싱그랭이는 과거길 주막에서 쉬며 신을 갈아신고 현 신발을 걸어 놓았다(신거리)하여 붙여진 이름이 변한 말이다.

- 원님 일행이 묵어가던 객사가 있던 원터와 옛 이정표인 300년 이상된 시무나무, 매년 당산제를 올리는 전통 문화가 남아 있으며, 국보 316호가 있는 화암사로 가는 길목 곳곳에는 야생화 군락을 이루고 있어, 해마다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는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.

- 계곡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화암사를 오르내리면 상쾌한 숲속 공기와 함께 이마에 맺힌 땀이 씻은 듯 사라진다.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이

직접 운영하는 두부체험과 식사가 가능해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싱그랭이 영농조합 법인(경천면 경가천길 377)

○ '진안 지오파크'는 산의 모양이 말의 귀를 닮았다하여 유래된 마이(馬耳)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지로 특히 식생 및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'은천'에는 반딧불이 등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.

-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마이산의 타포니(풍화혈)지형은 풍화 작용으로 외력이 바위 내부에서 팽창을 일으켜 독특한 형태의 지형을 만든 곳으로 지질학적 중요성 또한 높은 곳이다.

-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에는 2017진안홍삼축제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가을의 즐거움을 한껏 선사할 예정이다.

▶ 찾는 위치 : 지오파크 화전교 지질탐방로(마령면 동촌리 126)

○ '무주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'은 덕유산국립공원(1,614m) 북쪽 70리에 걸쳐 흐르는 무주구천동 계곡과 반디랜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.

- 무주 구천동 33경이 계곡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, 원시림 사이의 맑은 물이 소와 담, 폭포를 이루며 이어지고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·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 중의 하나이며, 무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'반딧불이와 그 먹이(다슬기) 서식지'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,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.

- 반디랜드 내부에는 무주의 자랑인 반딧불이 뿐 아니라 2천여 종 13,500여 마리에 달하는 전 세계 희귀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으며,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대표 화석을 복원한 진입동굴, 나비와 곤충의 표본으로 나뭇잎을 연출해 만든 곤충나무 등 다양한 볼거리로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.

▶ 찾는 위치 : 무주 반디랜드(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)

○ '장수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'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'금강의 발원지'인 뜬봉샘을 배경으로, 백두대간 마실길 탐방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.

- 야생화 군락지를 비롯해 삶과 담비, 멧꿩, 강돌고기 등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, '금강사랑 물체험관'에서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 및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.

- 물길을 따라 걸어가며, 내려다보이는 뜬봉샘 아래 수분마을은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인 수분재를 중심으로 남으로 섬진강과 북으로 금강을 분수하는 곳이다.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작은 산촌마을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뜬봉샘 생태공원(장수읍 물뿌랭이길 10-18)

○ '임실 성수 왕의 숲은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상이암과 성수산을 배경으로, 높이 876m로 계곡이 깊고 숲이 울창하며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탁트여 사방으로 전망이 빼어난 것이 특징이다.

- 성수산 내에는 40여년이 넘는 10여만 그루의 엄청난 규모의 편백 산림욕장이 주변 나무와 어우러져 피톤치드와 함께 신선한 공기를

내뿜으며, 지친피로를 한번에 날려 보내준다.

- 왕조의 건국의 기운을 받기 위해 상이암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연중 이어지며, 기도의 기운과 함께 봄철의 파릇파릇함부터 겨울철의 눈꽃까지 사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명소이다.

▶ 찾는 위치 : 임실 성수산(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373)

- ‘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’는 섬진강 상류의 장군목 일대로, 용굴산과 무량산 사이의 산세가 장군대좌형 명당이어서 장군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.

- 섬진강 상류지역의 우수한 생태계, 지질자원은 수만 년 동안 물살이 다듬어 만든 기묘한 바위들(포트홀)이 약 3km에 걸쳐 형상으로 신비함을 자아내며, 계절별로 독특한 모습이 연출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. 특히 장군목 한가운데 놓여있는 이 요강바위는 한국전쟁때 이 바위에 몸을 숨겨 화를 모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.

- 수려한 섬진강변을 따라 조성된 트래킹 코스는 자전거, 도보 탐방객들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, 해발 646m의 순창의 숨은 비경인 용굴산 치유의 숲에는 명상의 쉼터가 곳곳에 있어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좋은 장소이다.

▶ 찾는 위치 : 장군목 생태관광지(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686-1)

- ‘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’는 1980년대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 냉각용수 공급을 위해 9개 마을주민을 이주시키고 운곡저수지를 건설한 이후,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방치되면서 폐경작지의 저층이 천이과정을 거쳐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이다.

- 습지보호지역,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람사르습지는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우수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과 연계하여 생태와 역사문화를 한번에 탐방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이다.

- “오감만족 - 동행”이라는 주제로, 유아동,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태해설,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, 연중 2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,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.

▶ 찾는 위치 : 고인돌박물관 주차장(고창읍 고인동공원길 74)

□ 이번 가을,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!

-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저마다形形色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을 맘껏 느끼고 싶다면, 태고의 자연 속에서 고즈넉함과 편안함을 간직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2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!

※ 생태관광지별 별도 사진 첨부